

##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 공정위원장 모두발언(2.26)

-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발족한 이후, 민생물가 안정이 한순간도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
- 특히,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필두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행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.
- 실질적인 민생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공정위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.
- 지난 2월 12일 3개 설탕 제조 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4,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엄정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.
- 작년 중대 담합 특별 처리반을 구성해 조사해 온 담합 사건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.
-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말도 있지만, 이번 제재를 선진국 표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, 이와 같은 표준이 지켜져야 담합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.

□ 시장 시스템은 개별 사업자와 소비자가  
자신의 이익을 경쟁 질서 속에서 추구할 자유를 부여하지만,  
사업자들의 담합은 경쟁 질서를 훼손하여  
시장 시스템을 왜곡함으로써  
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입니다.

○ 특히, 설탕과 같은 원재료, 생필품 시장의 담합은  
근원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의 피해로 이어집니다.

□ 설탕에 이어 밀가루, 전분당, 교복 등  
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 
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○ 지난 설 연휴 직전 발표하였듯이,  
7개 밀가루 제조업체의  
약 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 
신속히 마무리하여 공정위 심의 상정이 이루어졌고,

○ 전분당 관련 사업자의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 역시  
다음 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

○ 또한,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 
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되어 온 품목으로,  
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 
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 
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,  
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 
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 
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 
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.

□ 공정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 
정부의 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명확히 전달된 결과,  
설탕 16.5%·밀가루 최대 7.9%·전분당 최대 16.7% 등  
사업자들의 자율적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는  
긍정적 효과도 있었습니다.

○ 이러한 효과가 더 많은 사업자들의 자율적 참여로 이어지고,  
가공식품,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 
공정위와 TF가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.

□ 앞으로도 담합, 독과점 등 민생 물가를 높이고  
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반칙 행위에 대해  
정부가 한층 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 
관계부처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